제주의 들꽃 : 질투가 낳은 슬픈 죽음

시인 | 김 순 남

가을이라고 하지만 땀방울이 스멀스멀 겨드랑이를 적시고 땀 냄새를 맡은 모기떼가 이게 웬 떡이냐며 떼거리로 덤비는 어음리 어느 들판에서였다. 속새풀 가득한 사이사이로 오이풀이며 잔대가 바람의 손을 잡고 살랑거리며 춤추고 유일한 관객이 된 리나 엄마와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동의 물결에 취해 있었다.

배꼽시계에서 시장기를 알려온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리나 엄마 얼굴의 주근깨를 덮으며 노을빛이 발그레 피어나 있었다. 서쪽 수평선에 걸려있는 햇덩이가 온통 구름이며 들판을 붉게 물들어 있는 광경이 뭐라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넋 놓고 있던 리나 엄마가 출렁거리는 가슴의 물결을 어찌하지 못하고 말을 꺼내들었다. 시인과 함께 있으니 이 풀밭의 향연이 더욱 좋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웠다. 시는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을의 풀밭처럼 아름다워서 슬픔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흠뻑 젖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녀도 나도 그 들판에서 목도한 자연 환경의 거대한 명장면들을 오랫동안 마음의 벽걸이에 걸어 둘 것이다.

엉덩이에 붙은 검불을 털며 돌아오는 길가에 저도 보고가라며 며느리밥풀 꽃들이 무리지어 나와 있었다. 다랑쉬 오름 바람코지에 슬픔보다 새빨간 꽃잎에 하얀 밥알 두 개를 물고 있던 며느리밥풀 꽃, 언제 보아도 안타까움으로 마음 밑둥까지 물컹거리게 하는 며느리밥풀 꽃 이 꽃을 보려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꾸만 그 언덕에 마음이 먼저 달려가곤 했는데 여기 목장 길에서 만나다니, 반갑게 안아주고 살그머니 뽀뽀를 하고나서 이 꽃에 담겨 있는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잡초라는 풀이름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사람들 못지않게 치열한 생존 드라마를 연출하며 모두가 생태계에서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시건방 떨며 함부로 만들어 놓은 단어일 뿐이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식물 어느 것 하나하나 생명이 아닌 것이 없다. 인간사에 지치고 힘이 부칠 때 산이나 들에서 만나는 꽃들을 보면 얼마나 편안한 위로를 주는지 모른다. 며느리밥풀 꽃 또한 세상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된다.

"며느리밥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의 "꽃새애기풀"도 있다. 예전에는 들이나 밭가에 혹은 길가에 흔하게 자랐지만 잡초로 취급되어 마구잡이로 살포되는 제초 농약 때문에 경작지 주변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어디에나 잘 자라지만 한해밖에 살지 못한다. 시어머니의 독기 품은 눈꼬리마냥 마주난 잎 사이로 빠알간 색의 꽃송이가 차례로 모여 핀다. 꽃부리는 긴 통모양이고 아랫입술에 밥알 두 개를 얹어 놓은 듯 하얀 점이 얄밉도록 귀엽게 붙어있다. 이 모습은 8월에서 10월이 다 가도록 오래도록 산바람 들바람을 맞으며 볼 수 있다. 이렇게 곱고 귀여운 꽃이 왜 하필이

면 며느리밥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설화에 의하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덧 아들은 성장하여 장가를 들게 되었고 아리따운 처녀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비단 같았으며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질투심을 품고 미워하기에 바빴다. 신방을 꾸민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는 당부를 하고 산 너머 마을로 머슴살이를 떠났다.

아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갖은 심술로 며느리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빨래하러 갔다 오면 누구를 만났느냐 다그치고 깨끗한 빨래가 더럽다며 마당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짓밟기까지 하면서 구박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밥이 조금만이도 늦으면 늦었다고 타박하고 빠르면 왜 그렇게 밥을 빨리 주느냐며 날마다 구박과 학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착한 며느리는 이 같은 구박에도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견딜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밥을 짓기 위해 솥에다 쌀을 넣고 불을 지폈다. 밥이 다 되어 갈 무렵, 뜸이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솥뚜껑을 열고 밥알을 몇 개 꺼내 입에 넣고 막 씹어 보려는 순간 부엌문 쪽에서 벽력같은 소리가 났다.

"이년아, 넌 위아래도 모르느냐."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솥뚜껑 여는 소리를 듣고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맨발로 달려 나왔던 것이다.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아니, 어른이 먹기 전에 네가 먼저 밥에 손을 대다니, 그런 못된 버릇을 어디서 배웠어."

며느리는 잘못도 없이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니 급기야는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결국 며느리는 밥알을 입에 문채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들은 급히 달려와 통곡을 하며 아내의 시신을 마을 앞 길가에 고이 묻어 주었다.

그로부터 여름이 되자 이 며느리의 무덤가에는 하얀 밥알을 입에 물고 있는 듯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마을사람들은 착한 며느리가 밥알을 씹어보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넋이 환생한 꽃이라 생각하며 며느리밥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슬픈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 때문인지 꽃말 또한 "질투"이다.

어른답지 못하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힌 시어미의 횡포가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셔버린 이 설화를 얘기하고 있노라니 요즘 시시 껄껄 말장난으로 나라를 잡아먹고 있는 정객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국가보안법이 며느리밥풀의 시어미를 너무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